

2008년 충남발전연구원 10대 뉴스



1. 연구원 독립 신청사 건립

“와~ 드디어 우리집이 생겼어요!” 1995년 개원 이후 줄곧 셋방 살이했던 설움을 털어내고 3월 14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독립 청사로 이전하면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연구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출퇴근을 감안한 연구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센스까지. 공기 좋고 새 소리나는 연구원으로 놀리오세요~

2. 연구원 예산 100억 돌파

100억? 규모가 큰 국책연구원과 비교해보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총80여명의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물산부족 없는 절약과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제거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조직개편
8개팀을 1실·3부·1센터로**

충남도민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통·폐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충발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능 중심의 8개 팀을 일 중심의 1실·3개 부·1센터로 통합·운영된다.

(충청투데이 12월31일사)

3. 연구원 조직 개편

8개팀을 1실 3부 1센터로 개편! 연구 역량 결집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유연한조직 운영을 통한 협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랍니다. 연간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구기관 최초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제 등으로 시작된 지속적인 경영혁신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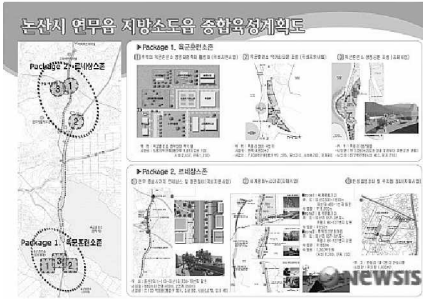


4. 충남리포트 발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인기 연구물! 바로 '충남리포트' 발간을 끝지 않을 수 없네요. 올해 처음으로 월 1회씩 발간되었던 충남리포트는 우리 충남도정의 현안분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로 한정하지 않고 수시 발간체제로 전환하여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한몫 단단히 하렵니다.

5. '충청지역연구' 학술지 발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발간키로 결정한 우리 연구원 최초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창간호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우리 지역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6.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충남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에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연구원에서 수행한 논산 연무읍, 보령 웅천읍, 홍성 광천읍 등 3개 소도읍이 최종 선정된 것이지요. 이곳에 2011년까지 각각 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막상 연구할 때는 힘들고 머리 아프지만 이런 결과를 보며 연구의 보람을 느낍니다. 팍팍!

7. 도산하기관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

올해 경영평가 1위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1위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연구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며, 또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에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당근을 더 주세요!



8. 복지카드 제도 도입 및 동호회 활성화

나마도라, 휘둘러, G3, 모비딕...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 이름들이랍니다. 연구는 물론 취미활동 역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로 처음 도입된 복지카드도 연구원 생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9. 안식년제 도입

"I'll be Back." 연구원의 지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안식년제. 연구원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여 되돌아오면 연구원 안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1년 동안 자릴 비워도 책상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10. 한밭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연구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갑니다. 지역의 연구원 모두가 그렇듯 모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연구원 수, 연구 시간과 양의 절대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동 연구는 물론 매니징, 코칭 역할을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협약이 아닌 진정한 상호 교류를 통해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李정부 "충청경제협의체 공동대응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고수 방침과 관련 대전, 충남·북이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결국은 지방재정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과 현 대덕연구단지의 문제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주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 6일 충남대 사회과학대에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전략'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과 더불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개정 저지를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실장은 더불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체와 비수도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비수도권 지역과 연대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실천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최근 과학기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권 발전전략’을 발표한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연구원은 “지난 30여년간 대전지역에 자리잡은 대덕특구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지역경제상승 효과부문에선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자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5년간 지방재정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재원 중 43조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당장 충남도에 내년도 상당부분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 주관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인 안정선 공주대 교수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국민권리를 찾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날 제기된 문제들과 대응 방안을 토대로 정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도일보, 2008.11.07 1면

충남발전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 연구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STEPI)은 1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발연과 과기정 간 지역경제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양 기관의 특화된 지식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와 교육 기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종합연구원과 과학기술 국책연구원 간 연구협력은 상호 이질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되고 습득해야 할 불가분의 관계임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충남의 과학기술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을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전국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성료

‘충청지역 갈등관리 사례연구 및 상생협력 모색하는 계기 마련’



지역의 갈등예방과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한데 모였다.

지난 11월 26일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주관사 충남발전연구원, 이하 상생 갈등포럼)'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대학(원)생 우수논문발표대회'가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그리고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발표참가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충청지역 상생협력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논문에 대한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대학원생 부문'에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정성근·송봉근 군(성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이, '대학생 부문'에 '천안·아산 간 갈등과 그에 따른 협력방안 조사연구'를 발표한 이



진성 군 외 4명(단국대학교 행정학과)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이던 홍민기 충주대 교수는 '모든 논문에 학생들의 열정과 땀이 묻어 나서 보기 좋았다.'면서 '논문의 간결성, 단순성 부족과 선별적 용어 사용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앞으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면서 상생협력방안연구에 매진한다면

갈등관리전문가로서 거듭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상생갈등포럼 관계자는 '채택된 우수논문은 지역의 갈등관리 교육 및 정책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첫 회였던 만큼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고품격 연구수행 할 터

충발연, 올해 사업구상 정기이사회에서 밝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의 2009년도 사업구상이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신,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과 道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결산,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충발연은 내년도 연구원 운영 목표를 '고품격 연구수행을 통한 고개만족 실현'으로 정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경영혁신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대응 논리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통섭적 협업연구 및 개방적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능 중심'의 8개 팀조직을 '일 중심'의 1실 3부 1센터로 통합·개편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은 연구원의 고
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책임제의 강화,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T/F팀
운영, 연구원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등 연구원 내·외부의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여 명품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발연은 그간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성과와 경영평가 1위를 인정받아 충남도로부터 올
해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연구비는 4억 원
이 증가하는 반면, 경상비 지출은 7400만원을 줄여 연구원 살림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국방과학산업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충남발전연구원,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세미나에서 밝혀



이명박 정부에서 방위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최근 국가·지역적 차원의 방위산업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부설 국방연구소는 12월 18일 오후2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김용웅 원장과 충남대 국방연구소 길병옥 소장 등 학계 전문가, 충남도를 비롯한 논산·계룡시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방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가 수립 중인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충남대 국방연구소 이재홍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충남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고, 군보다 우위인 기술

수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관-군이 중심이 된 국방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 연구개발과 인프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경기대학교 김강녕 교수는 “충청남도 국방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에서 “2003년 출범한 국방벤처산업은 이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방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조립산업 위주의 발달에 머물고 있는 국방벤처산업을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등 첨단기술기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고, 나홀로 충남이 아닌 충청권이 공동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추진단’ 혹은 ‘국방과학운영협의회’ 등과 같은 통합운영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방위산업은 비밀과 보안을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및 전문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국방과학산업은 충남의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으로써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방과학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충남의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발전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09년도 조직개편 단행

- 연간 2,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충남발전연구원이 2009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충발연은 지난 2007년 1차 경영혁신을 통해 연구기관 중 전국 최초로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 경영혁신을 단행, 기능 중심의 8개 팀을 일 중심의 1실 3부 1센터로 통합·운영하는 조직개편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상대적으로 연구 기능이 쇠퇴한 4개 팀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연구 역량 결집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한 통섭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획정보팀을 기획조정연구실로 변경하여 연구기획·조정 및 평가, 연구성과물 홍보 및 확산, 출판과 정보자료실 운영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기존 연구팀을 지역정책연구부, 공간계획연구부, 그리고 환경생태연구부 등 3개부 체제로 통합하여 도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산업디자인연구팀은 공공디자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충남의 통합적 공공디자인 정책과 지역의 특화된 문화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통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연구의 조직적 역량강화와 부서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이인배 △지역정책연구부장 성태규 △공간계획연구부장 박철희 △환경생태연구부장 이상진 △공공디자인센터장 이충훈